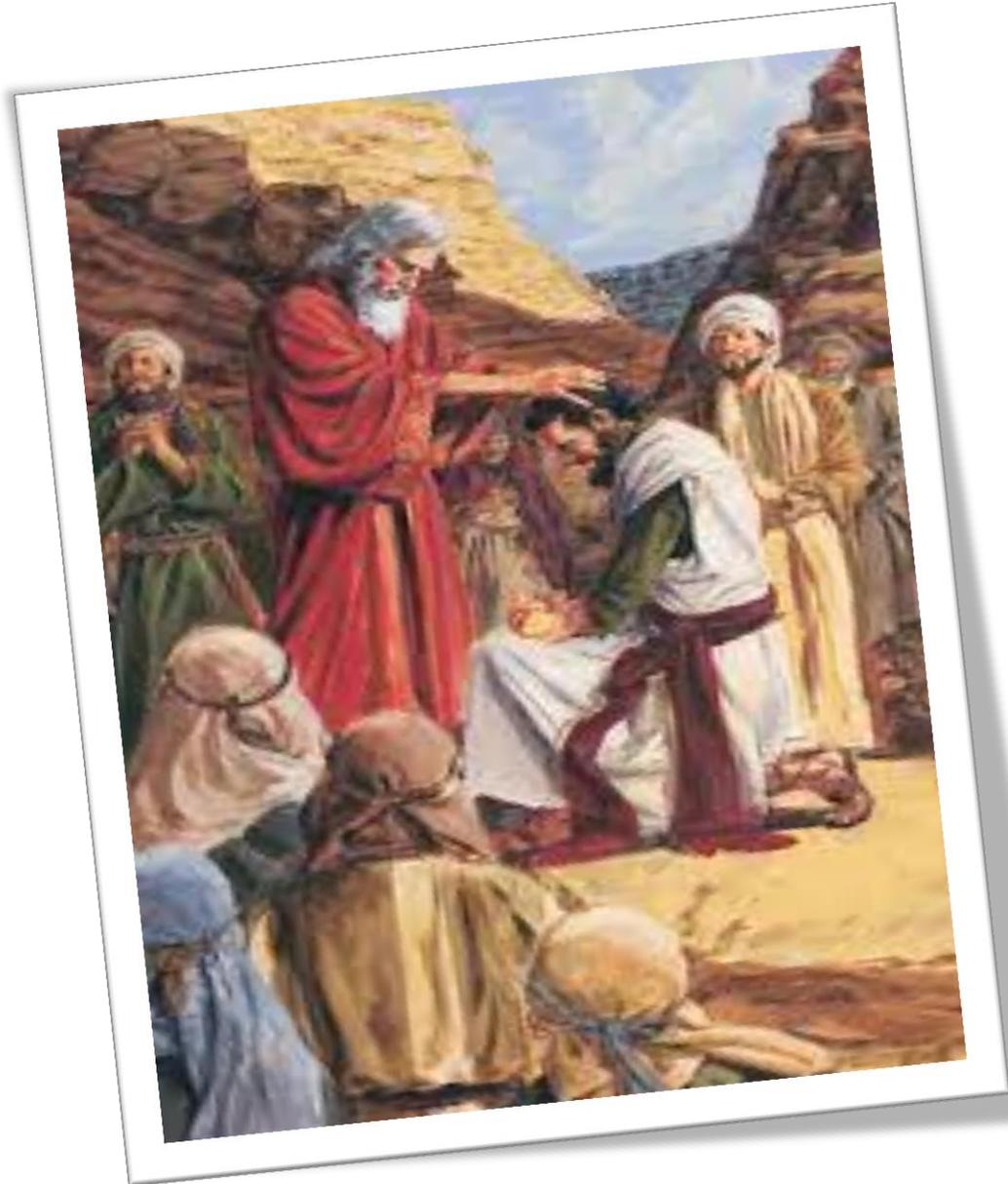


제3강의(7월20일)



'소명과 결단'
모세와 여호수아

성정바로성당

야곱과 함께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탈출 1,1)



르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
사카르, 즈불룬, 벤야민, 단, 납
탈리, 가드, 아세르이다. 야곱의
몸에서 난 이들은 모두 일흔 명
이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은 이
미 이집트에 가 있었다. 그 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
이 낳고 늘어만 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졌다. 그
리하여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
들로 가득 찼다. (1,2-7)

구 예루살렘 유대인들 구역의 길에 새긴 12지파를 나타내는 모자이크

Photo: By Utilisateur: Djampa, via Wikimedia Commons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탈출 1,8)

최근까지 박해한 파라오과 탈출기 당시의 파라오에 대한 엇갈린 의견들이 있다. 제 18왕조의 기원 전 15세기와 제19왕조의 기원 전 13세기로 압축된 문제가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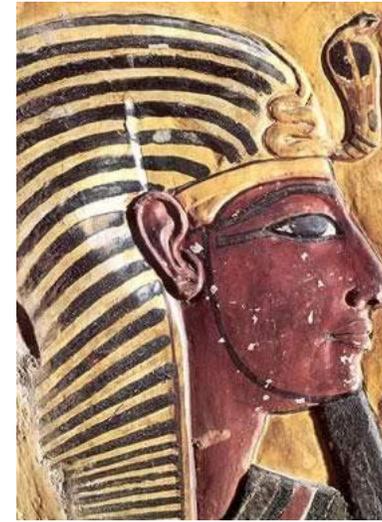


그러나 현재까지 13세기로 보는 견해가 더 짙어지고 있다. 13세기에서도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파라오 때인가 하는 구체적 인물을 꼽는 것이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양식을 저장하는 도읍인 피툼과 라메세스를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사에 동원시켜 강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여자 아이면 살려 두지만 사내 아이는 죽여 버리라고 시킵니다.(탈출 1,11.16)



세티 1세 (기원전 1290-1279)가 이스라엘을 박해한 파라오이고 람세스 2세(기원전 1279-1213)는 탈출기 때의 파라오로 보는 의견과, 또 다르게는 람세스 2세는 박해자이고 메르넵타(기원전 1213-1203) 때에 탈출기 이루어 졌다고 보는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



schoolworkhelper.net/seti/

Merneptah



https://en.wikipedia.org/wiki/File:Merneptah_Louxor-HeadAndShoulders-BackgroundKnockedOu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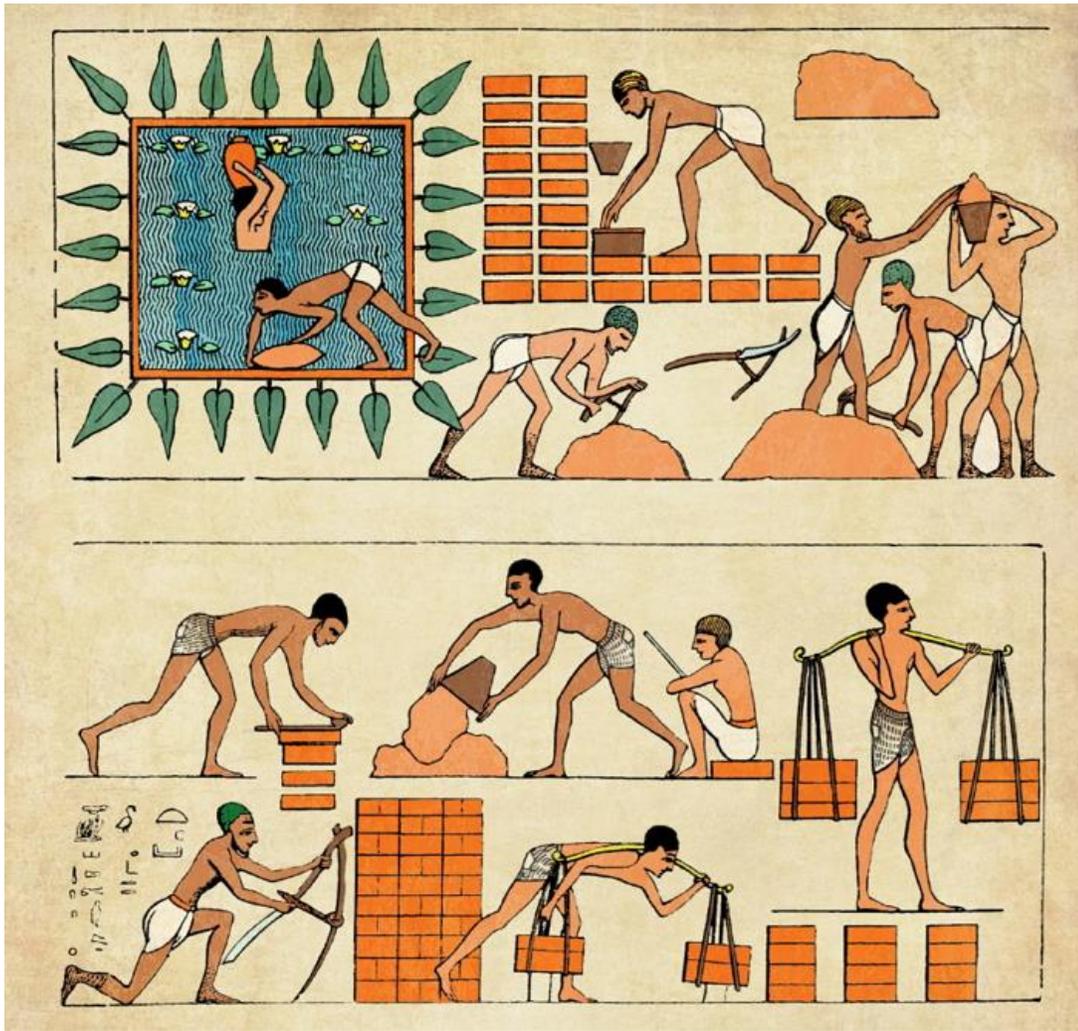
ancient.eu/Ramesses_II/

이집트가 쇠퇴기를 치닫고 있으면서, 셈족 계통의 히소스(Hyksos)왕조 (1720 -1570 B.C)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다. 히소스 통치자들은 이집트의 18대 왕조의 창건자인 아모시스 (Amosis) 1세에 의해 축출(逐出)된다.

이스라엘인들은 시기적으로 아바리스에서 토목 공사를 했던 세토스 1세에 의해서 타민족이 강제노동을 강요 받았고 19대 왕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스라엘인을 박해했던 파라오가 이 세토스이고 그의 후계자인 파라오 람세스 2세 때 탈출기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Albright, Aharoni Y)



고대 이집트 히소스 왕 아포피스의 카우로이드 인장-부적(Cowroid seal amulet; 기원 전 1581-1541)
뉴욕 메트로폴리탄 예술 박물관 소장)



pasteve.com/escape-from-egypt/

역사적인 근거가 유력하다면 이스라엘이 고센지방을 중심으로 정착을 하다가 왜 요셉의 치적을 알지 못하는 새 파라오에 의해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착취를 당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 같은 셈족계통인 히소스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인은 특혜를 받아왔지만, 새로 등장하는 에집트의 18대부터 히소스 왕조의 축출과 함께 이스라엘인도 적대감과 경계심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탄압(彈壓)을 받게 되었다. (탈출기 1장)

강물에서 건진 아기 -모세-

공주는 그 아이
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
서 건져 냈다.” 하
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였다.
(탈출 2,10)

Gustave Doré



alamy stock photo

EX6B7R
www.alamy.com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왔다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그 안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인 줄 알지만 불쌍이 여겨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려 합니다. 그 때에 미리암이 나서서 유모를 구하겠다고 나서고 결국 자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자 그 유모 (모세의 어머니)는 파라오 딸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abidinginthevine.net/prayer-pharaohs-daughter-and-moses/



Credo Bible Study™



Center for Tanakh Based Studies

<미디안으로 모세의 피신> (탈출 2,11-14)

모세는 자란 뒤 어느 날 이집트인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인 다음 모래 속에 묻습니다. 어느 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자기가 이집트 인을 죽인 사실이 탄로난 것을 압니다.

파라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 길로 모세는 도망을 쳐서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사제의 일곱 딸이 우물가로 와서 물을 마시고 양 떼에게 물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녀들을 쫓아내자 모세가 목자들을 쫓아내고 그 딸들을 도와 양 떼에게 물을 먹이게 도와줍니다.

그녀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을 도운 한 사람에게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모세가 루우엘에 집에 가서 살며 딸 중에 치포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 들 사이에 게르솜 아들을 낳습니다. (2,21-22)



미디안 장인 이트로의 양을 치던 모세는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떨기나무 한 가운데로부터 불꽃이 솟아 오르고 모세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모세는 “저 떨기가 왜 타 버리지 않을까?”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자 주님께서 떨기 한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하고 그를 부릅니다.(3,4)



bibledevotiontranslations.wordpress.com

주님께서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하고 부르셨다. (탈출 3,4)



하느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파라오 밑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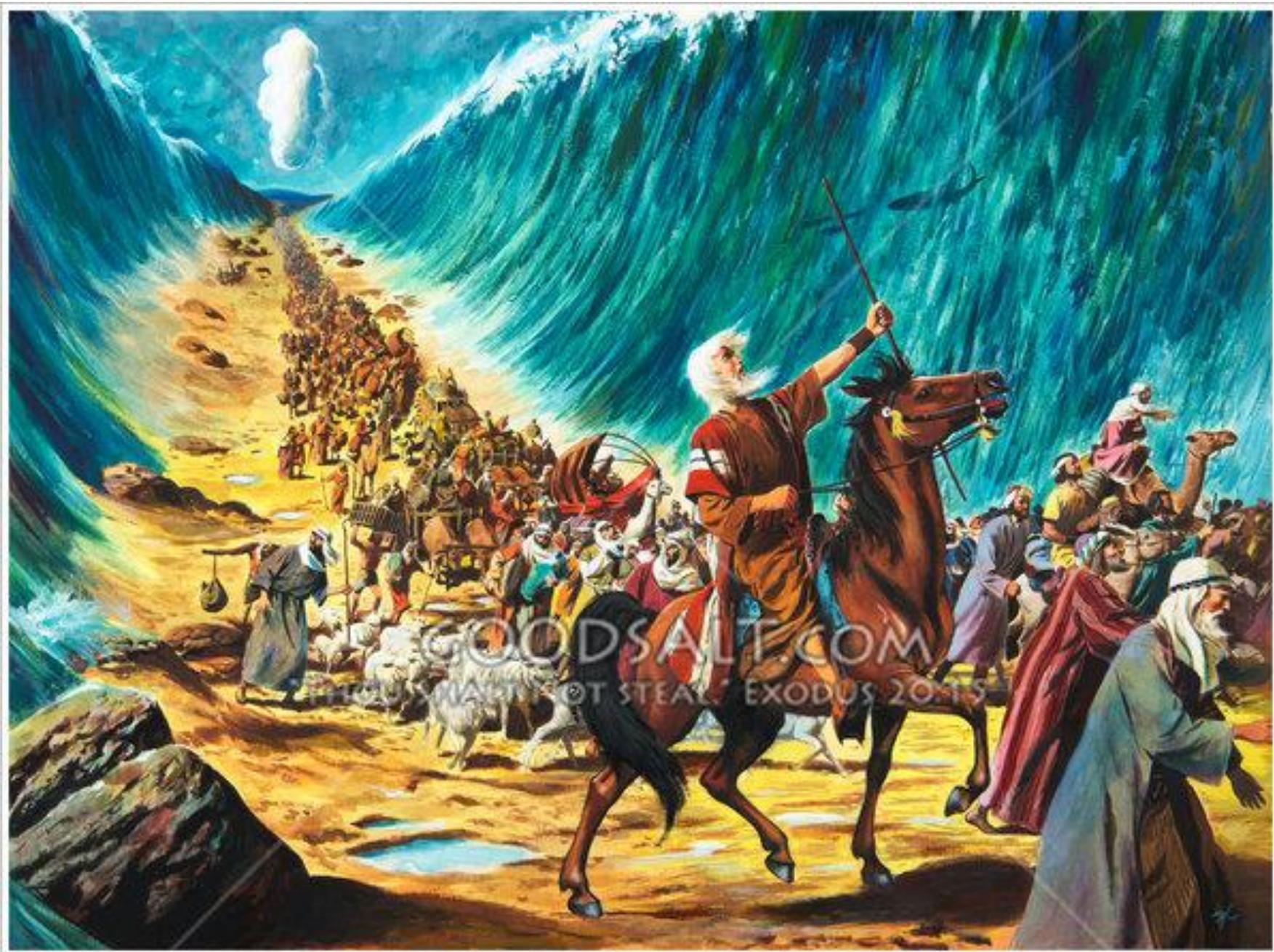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3,11절)

헤벨(N.Habel)은 양식사적 방법론을 통하여 '성소사화(Call Narratives)'를 6단계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적 만남(The Divine Cofrontation), 입문적 말(The Introductory Word), 소명부여(The Commission), 제의 거절(The Objection), 용기와 격려를 주심(The Reassurance), 상징적인 것을 부여(Signs) ZAW77 (1965) 297-323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이름으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으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느님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격려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십니다.

열가지 재앙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7,14-21), 둘째 재앙: 개구리 소동(8,3-10), 셋째 재앙: 모기 소동(8,12-15), 넷째 재앙: 등에 소동(8,16-27), 다섯째 재앙: 가축병 (9,1-7), 여섯째 재앙: 종기(9,8-12), 일곱째 재앙: 우박(9,13-35), 여덟째 재앙: 메뚜기 소동(10,1-20) 아홉째 재앙: 어둠(10,21-29), 열째 재앙 예고(11,1-10), 파스카축제(12,1-14), 무교절 (12,15-20), 파스카축제에 대한 지시(12,21-28), 열째 재앙: 이집트 만아들과 만배의 죽음(12,29-36)

열거된 재앙들의 현상은 나일강 범람과 이집트의 지리적 자연현상과 부합한다. 이 재앙들을 통하여 야훼께서 신격화된 파라오를 누르고 하느님께서 한없이 우월하신 분이심을 과시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자연현상과 부합하지만, 이 현상들을 통하여 파라오에 대한 모세의 예언과 경고가 성취되는 것이다.



GOODSALT.COM

DO NOT STEAL EXODUS 20:15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다(13,17-22)
에탐에서 갈대 바다로(14,1-4)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뒤쫓다(14,5-14)
이스라엘인들이 바다를 건너다(15-31)





bp0.blogger.com/Wilderness2.jpg

<행진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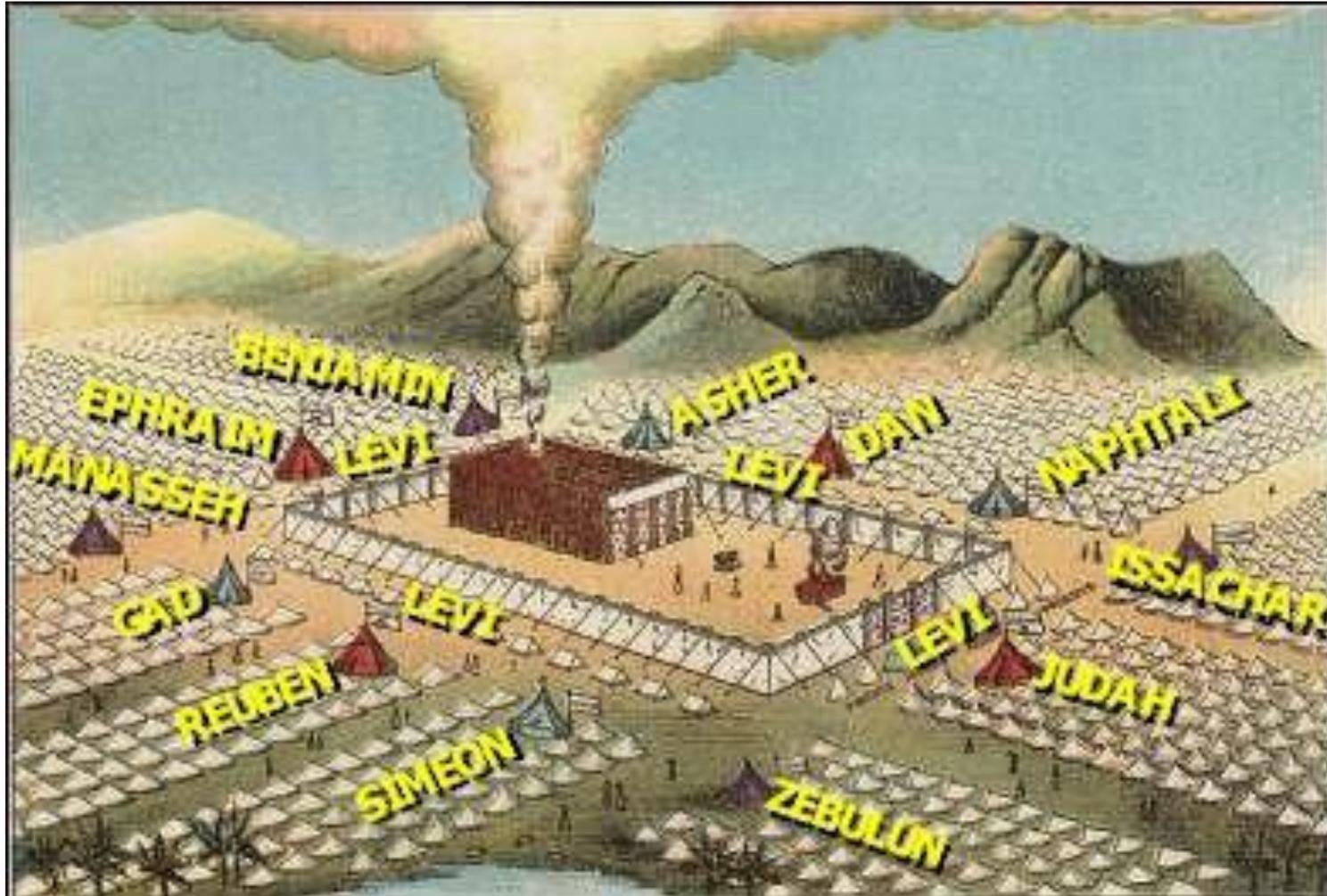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쉴 곳을 찾으려고 주님의 계약 궤가 그들 앞에 서서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진영을 떠나면 주님의 구름이 낮 동안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궤가 떠날 때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신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그리고 궤가 멈추어 설 때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수만 군중에게로!" (민수 10,33-36)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수컷으로 향하였다. 아이들을 빼고, 걸어서 행진하는 장정만도 육십만명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많은 이국인들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고, 양과 소 등 수많은 가축 떼도 올라갔다. (탈출 12,37-38)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사백삼십 년이다.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부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탈출 12,40-41)

부녀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친다면 전체 인구는 최소한 200만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가축 떼를 빼더라도 이들의 행렬을 최소 500-1000km는 될 것이다. 이런 무리가 하룻밤에 갈대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숫자가 과장된 것은 이 본문이 쓰여진 시대, 즉 후기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인구 숫자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기 시대의 전 이스라엘 사람이 탈출한 것을 썼기 때문이다.

지파들의 야영 위치와 행진 순서>(민수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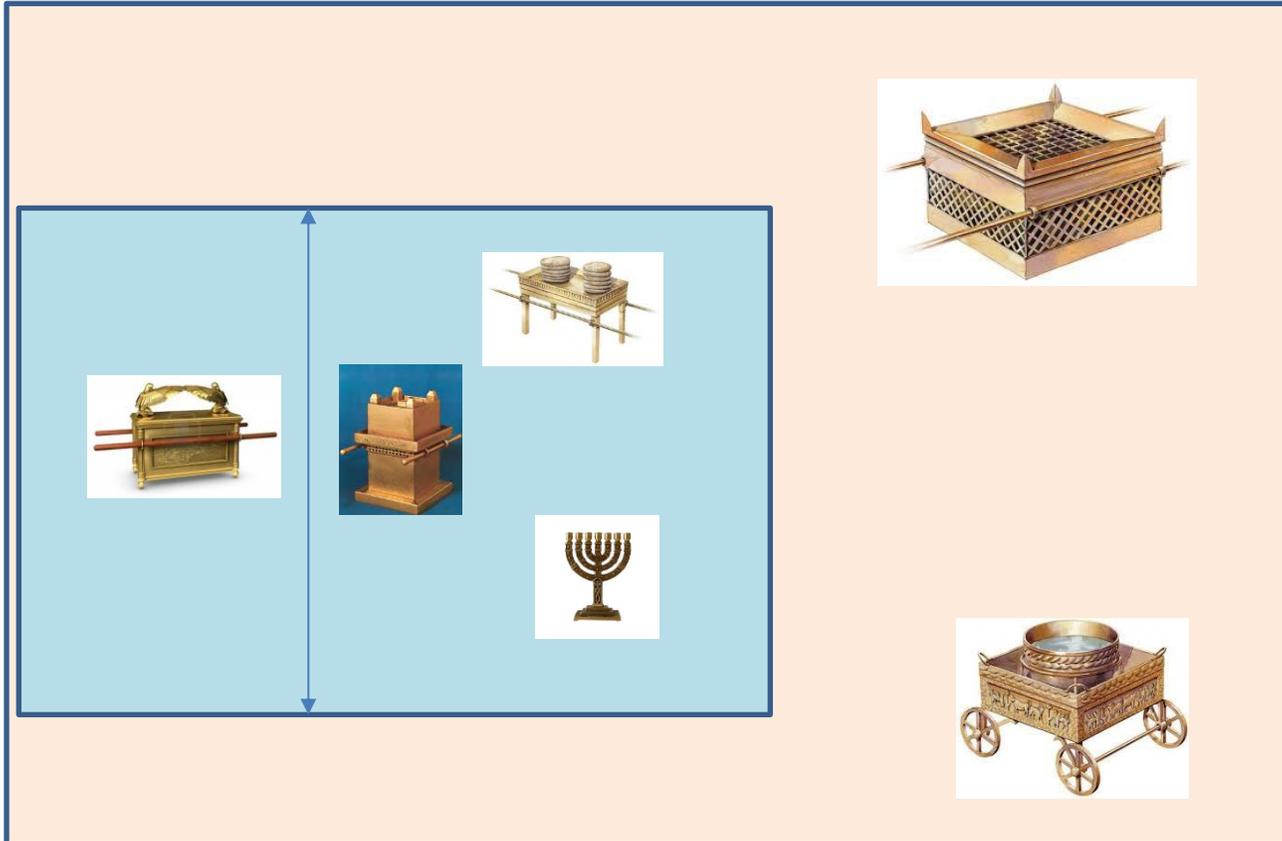


The Quantum Tabernacle Within - Rudy Jones | Atam.Org

하느님 궤와 사제들 (민수 2,1-3,39)

무라리

게르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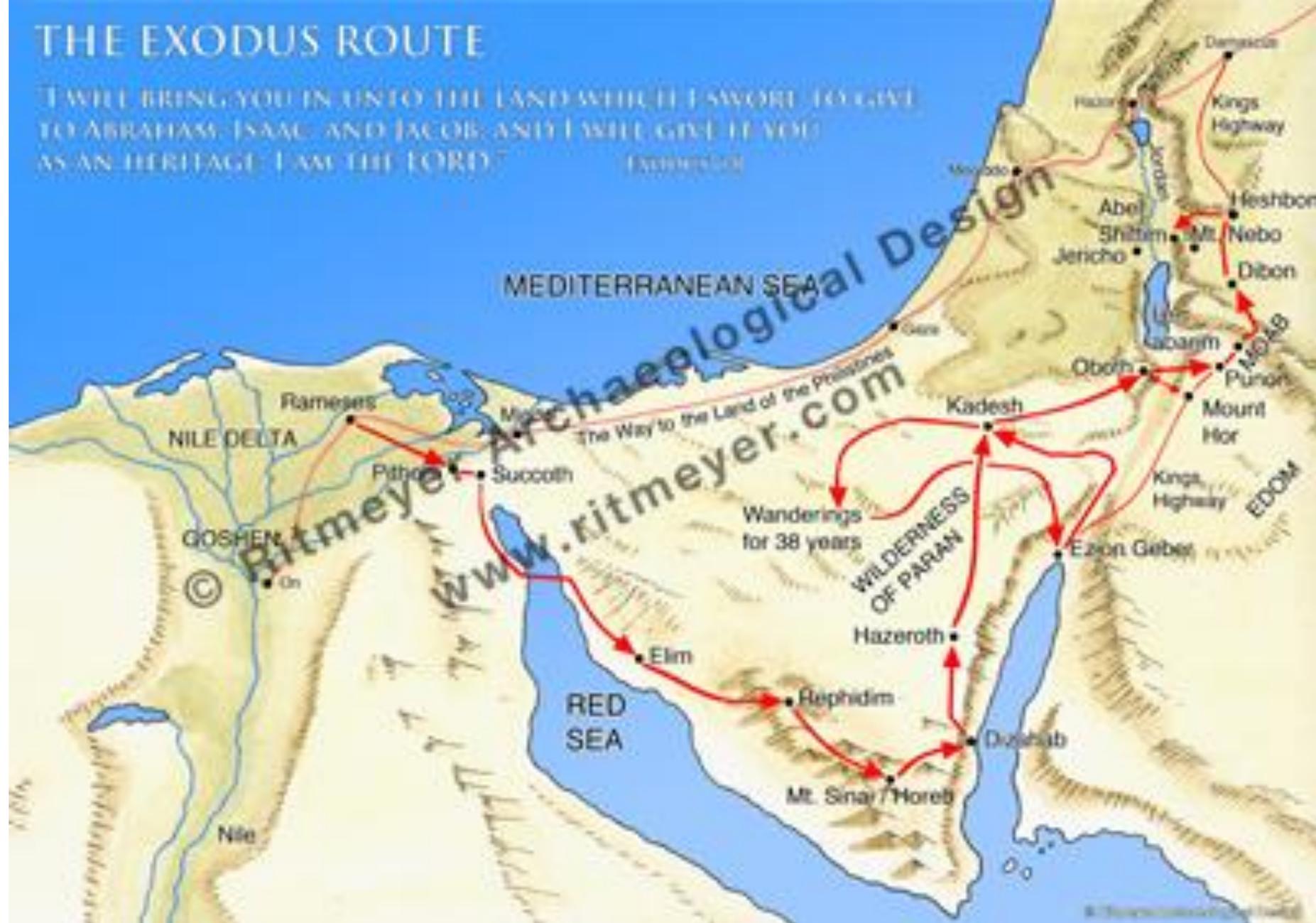


모세 &
사제들

크핫

THE EXODUS RO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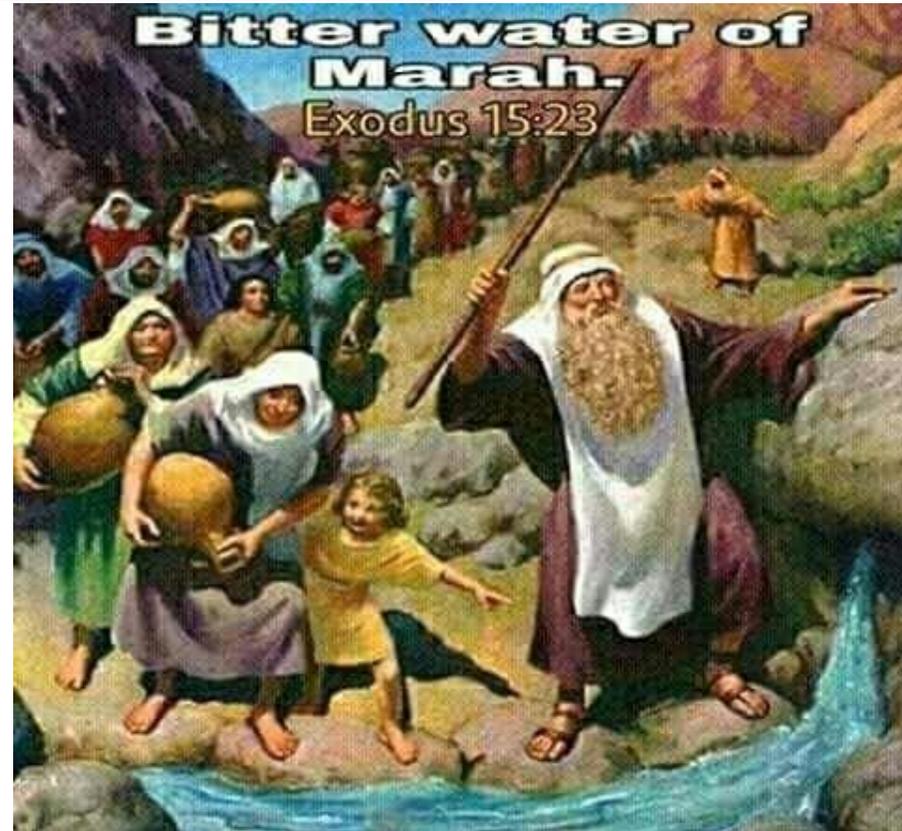
"I WILL BRING YOU IN UNTO THE LAND WHICH I SWORE TO GIVE TO ABRAHAM, ISAAC, AND JACOB, AND I WILL GIVE IT TO YOU AS AN HERITAGE. I AM THE LORD." (Exodus 33)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하느님께서
는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을 지나는 길이 가장 가까
운데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느
님께서 '그들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
하셨던 것이다. (탈출 13,17)

그래서 하느님께서 백성을 갈대 바다에 이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
열을 갖추고 이집트 땅에서 올라갔다. (탈출 13,18)

이스라엘은 갈대바다에서 떠나 수 광야로 나아 갑니다. 사흘을 걸었는데도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합니다. 마라라는 쓴 물이 있는 곳에 다다르 지만 맛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 이 불평하자 모세가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무를 그 물에 던지자 단물로 변합니다. (탈출 15,23-25)



공동체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물려갔다. 백성은 모세와 시비하면서 말하였다. “아,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여기에서 죽게 하시오? 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소? 여기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 되오.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 앞을 떠나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민수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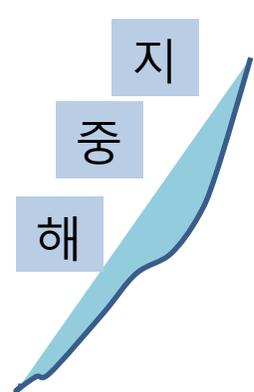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지팡이를 집어 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더러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바위 앞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 주랴?”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두 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므리바의 물이다. 주님께서서는 이 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민수 20,7-13)



지

중

해

예리코
길갈

암몬

모압평야

느보산

모압

헤브론

카데스

에돔

카데스: 가나안 남
쪽 정탐 후에 약 38
여년에 정착했던
장소(민수 15-2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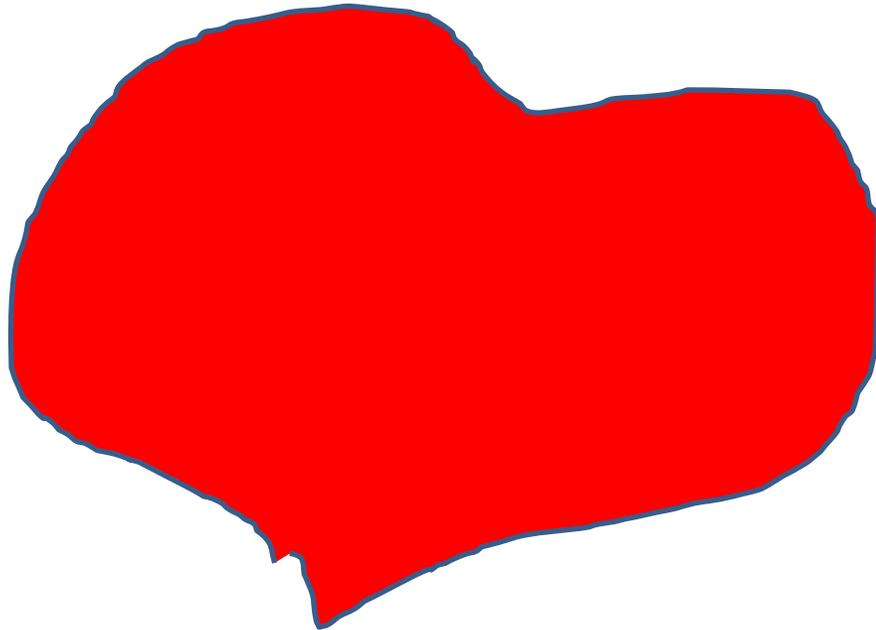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
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
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
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 6,4-5)

שְׁמַע יִשְׂרָאֵל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 אֶחָד:

וְאַהֲבָתָּהּ, אֵת יְהוָה אֱלֹהֶיךָ, בְּכָל-לִבְבְּךָ וּבְכָל-נַפְשְׁךָ, וּבְכָל-מְאֹדֶךָ.

And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y heart, and with all thy soul, and with all thy might. (Dt 6,5)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예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 산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자, 야훼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단에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나쎄 지방, 서쪽 바다에 이르는 온 유다 지방, 네겝과 종려 도시 예리고 골짜기의 분지를 소알에 이르기까지 보이시며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이렇게 너의 눈으로 보게는 해준다마는, 너는 저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신명 33,1-4)

모압평야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민수 20,12)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예리코 맞은쪽,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느보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유하라고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간 것처럼, 너도 네가 올라간 산에서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친 광야에 있는 므리밧 카데스 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에서 나를 배신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 한가운데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을 멀리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한다.”(신명 32,48-52)

<모세가 각 지파에 복을 빌어주고 죽음을 맞는다>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예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 산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자, 야훼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단에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나쎄 지방, 서쪽 바다에 이르는 온 유다 지방, 네겝과 종려 도시 예리고 골짜기의 분지를 소알에 이르기까지 보이시며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이렇게 너의 눈으로 보게는 해준다마는, 너는 저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33,1-4)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압 땅 벳 프오르 맞은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백스무 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3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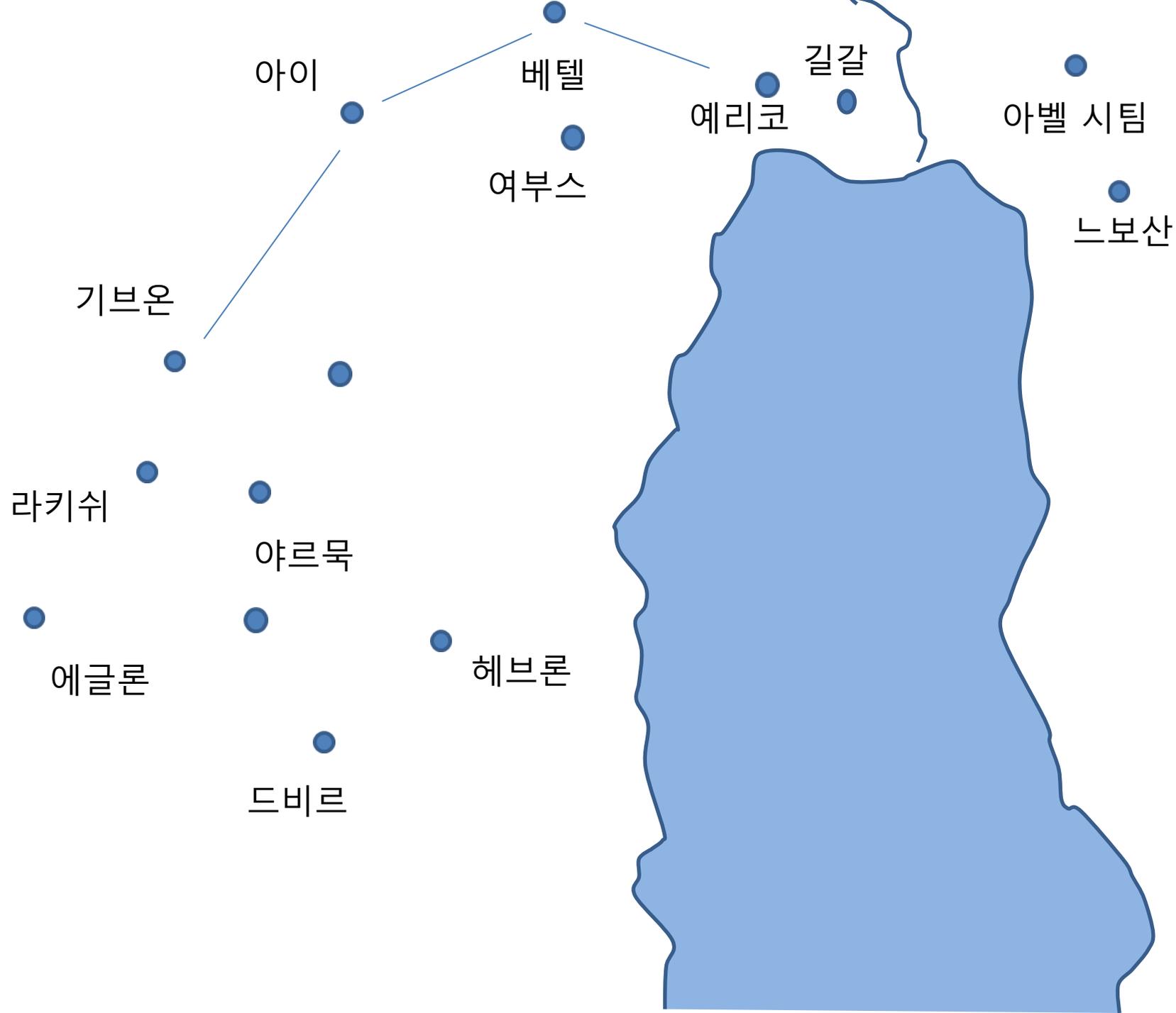
<https://www.summitpost.org/view-from-mt-nebo/812073>

느보산에서본 모압과 가나안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네 직책을 맡겨라. 그를 격려하며 용기를 넣어주어라. 여호수아야말로 이 백성의 앞장을 서서 네가 보는 땅에 건너가 그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줄 자이다.’ 우리가 벳브올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일이다.” (신명 3,28-29)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내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일렀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야훼께서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사람은 바로 너다. 저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해줄 사람은 바로 너다. 야훼께서 몸소 너의 앞장을 서주시고 너의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너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마라." (신명 31,7-8)



<여호수아가 죽다>

이런 일들이 있는 뒤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백열 살이었다. 그는 자기가 상속 재산으로 받은 땅, 곧 가아스 산 북쪽,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팀낫 세라에 묻혔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원로들이 여호수아보다 장수하며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은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요셉의 유골을 스켄에, 야곱이 스켄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돈 백 냇을 주고 산 밭에 묻었다. 그곳은 요셉 자손들의 상속 재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아자르도 죽었다. 그는 자기 아들 피느하스가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인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기브아에 묻혔다. (24,29-33)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 여호 5,2-9
할례를 받지 못한 자손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다. 그
리고 온 겨레가 진영 안 자기 자리에 머물렀다.

<가나안에서 첫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흘날 저녁
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
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
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
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해에 가
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5,10-12)





암몬

모압

에돔

처음에는 고대 근동의 고등신(高等神)의 옛이름인 '엘:티'을 중심으로하는 엘숭배 연합체가 중심이 되다가 서서히 거대한 야훼숭배체제(Yahwism)가 되었다고 보고있다. 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체제는 평등주의(Egalitarianism)의 수평관계(水平關係)와 절대 야훼신앙(Yahism)의 종속체제(從屬體制)를 중심으로 강한 결속을 다져 나가게 되었고 이 체제를 바탕으로 가나안의 다신사회(多神社會)와 봉건체제(封建體制)를 서서히 붕괴(崩壞)시키며 확산되어 나갔다. 이와같이 유일신 야훼신앙(Yahwism)은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복합적인 요소들의 체제를 하나로 결속하고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구심점(求心点)이며 원동력(原動力)이 되었다 (N.K. Gottwald, The Hebrew Bible: A Socio-Literary Introduction; 1987. 272-276).